

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물관리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 실시

- 농업인 소통과 안전의식 강화 나서 물관리 현황 공유 및 민원 해소 기회 기후변화 대응 속 안전영농 약속

2025.04.09 16:22 입력



▲‘2025년도 안전영농 물관리 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가 9일 ‘2025년도 안전영농 물관리 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을 열었다.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리시설 감시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기후변화 속 안전영농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다짐했다. 지역 상생의 발판이 주목된다.

2025년 4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가 지역 농업인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2025년도 안전영농 물관리 현장설명회 및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교육’은 공사의 물관리 업무를 알리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물관리 현황 보고와 함께 수리시설 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병행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명회에서는 물관리 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진 안전교육에서는 실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감시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의 민원과 수리시설 감시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공사와 지역 주민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상생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농업용수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한 시간이었다.

범필재 지사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설명회가 공사의 역할과 농업용수의 가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길 바란다”며 “기후변화로 농업인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 지사는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영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직원의 헌신을 약속했다. 물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다짐한 대목이다.

목포무안신안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한 업무 설명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줬다. 농업용수 유지관리와 안전교육을 결합한 이번 설명회는 농업인과 공사 간 신뢰를 강화하며, 기후변화라는 도전 속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장이 지속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손봉선 대기자 jeonmae5242@naver.com